

“여력있을 때까지 최선”

■ 봉원사 공양주 김복순 보살

“눈 뜨고 감을 적마다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나오는 데로 찾아.”

새벽 4시 여명이 감도는 시각, 도량석 목탁 소리가 도심 사찰을 다독인다. 서울 봉원사(주지 일운) 삼천불전 아래 자리한 공양간에는 동지 팔죽에 들어갈 음식이 채반에 가득하다. 그곳에서 만난 김복순 보살(78·보문행)의 분주한 손길도 실 틀이 없다. 무자년 삼동산림결제(三冬山林結制) 기간에 동지와 관음예문(중산림)까지 걸친 탓에 정신 없을 법한데도 노보살의 정갈한 분주함은 절도 있게 느껴진다.

“공양주로 인연 맺은 지 20년도 넘었지. 봉원사 관음회서 삼천불전 기와불사 접수 받는 일을 할 때였어. 공양주 보살이 다리를 다쳐 당분간 봐준다는 것이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

오가피, 율름도산 부지쟁이, 더덕무침 등 10가지 반찬이 영단에 올릴 것과 200여 대 중 공양물로 구분돼 그릇에 적혀 담겼다.

매일 새벽 일어나는 일이 고단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눈이 저절로 떠져. 부처님 가피 뿐이 없다고 봐. 하루도 변함없이 새벽 3시면 일어나 술에 물을 끓이니까”라는 답이 돌아온다.

달리 비결이랄 것 없는 참기름 간에 통근 러진 손맛으로 설설 버무려진 나물을 보고 있자니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민다는 부처님 말씀이 떠올라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신도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도량을 다시 찾을 때 가장 뿌듯하지. 움직일 여력이 있을 때까지 하루 세 번 밥 짓는 일만은 최선을 다할 거야.”

김해 진영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결혼해 맹장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는 그가 봉원사 대중이 된지도 30년이 됐다고 해야 한다. 시계가 오전 5시로 향하자 밥 짓을 따라며 짐통에 불린 쌀을 넣고 밥물을 맞춘다. 문을 닫기 전 두 손을 모아 경건한 합장 반배를 올린다. 밥은 그에게 소중한 스승이자 스스로를 일깨우는 죽비와 같았다. 부처님 전에 마지막공양을 올리겠다는 김보살의 서원이 울 한해도 지속되길 바란다.

기연숙 기자

‘낮은 물이 마중물(실마리)이다.’ 초하루, 보름 법회날만 사찰을 찾는 이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도량의 마중물 공덕이 있다. 절일을 삶의 일부로 보살피며 보사(保寺)로 사는 보살들, 서울 봉원사·봉은사·부산 흥법원·김제 금산사에서 법행을 전하는 그들의 보살행을 통해 신바람 나는 기축년, 감로의 희망 머금은 한 해를 살아보자. 활력 넘치는 대홍물의 해답을 도량의 마중물에서 찾는다.



“부처님께 감사해 청소”

■ 부산 흥법사 이복개 보살

“남들 안하는 곳은 일단 하는 보살이에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살님은 보수 안 받으요?” “아이고, 10년째 오직 신심만으로 청소하는 분입니다.”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이복개 보살(61·불성화)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가장 지저분하고 눈에 띄지 않는 도량 청소를 10년째 하고 있다. 자판기 안 늘어붙은 커피 찌꺼기, 화장실 변기, 공양간 개수대 수세 구멍, 채소밭 거름주기, 스님처소 장작 패기 등 흥법사의 모든 허드렛일은 이보살의 손을 거쳐 간다.

그는 “맨 처음 수계받을 때 스님께 염주를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참다운 불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고, 부처님께 너무 감사해서 도량 청소라도 잘 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청소를 시작하게 된 연유를 설명했다.

그중 가장 신경 써서 닦는 곳은 개수대 거름망이라고. “그물망에 누렇게 긴 때를 보면 꼭 내 삶의 ‘업(業)’ 처럼 여겨져서 늘 닦는다고 말했다. 세심하고 부지런한 성품답게 이보살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된다. 새벽 5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아들

과 등교하는 손자, 새벽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의 아침상을 준비하고, 약수터에 가물 을 떠오면 바쁜 오전 일과가 끝난다.

점심식사를 챙겨먹을 겨를도 없이 절에 도착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오후 6시까지 청소를 한다. 매일 6시간 꼬박 절에서 보내지만 정작 법회에 들어가거나 기도하는 시간 없이, 법당 밖 청소를 하며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정근한다. 이보살은 “우리 절은 행자스님이나 비구니스님이 안계시니 허드렛일을 할 사람이 없고, 큰 보시를 할 형편이 안 되니까 내 공부를 조금 덜하려다도 더러운 곳을 닦는 것 뿐”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더 많은 이들의 성불을 위해 언제나 법당 밖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내고, 함께 일하는 도반들을 위해 등에 옷을 넣고 ‘곱새 살는다’고 말했다. 세심하고 부지런한 성품답게 이보살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된다. 새벽 5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아들

박지연 기자

“가슴으로 불교 느끼도록”

■ 봉은사 템플스테이부 안영단 보살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외벽에 그려진 심우도·팔상도를 보던 한 외국인인 “나는 기독교 신자지만 불교를 더 사랑한다”고 말한다.

봉은사 템플스테이부 안영단 부장(55·고불심)이 몇달 전 “서양에서는 인간이 가장 높은 동물이지만 불교에서는 인간, 동·식물 모든 일체가 평등하게 공존한다”고 설명할 때 일어난 일이다.

2008년 한 해에만 1만2000여 외국인인 방문할 정도로 봉은사가 외국인들에게 인기 많은 이유는 비단 근처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위치한 것 때문만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사찰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언어로 전과 이곳저곳을 설명하고, 발우공양 등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 도우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

에 안영단 부장이 있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독교인으로 불교를 믿었다. 하지만 1996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봉은사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듣다보니 그것이 참 불교가 아님을 알았다.”

안 부장은 1997년부터 봉은사 교무부, 기획부 등에서 봉사를 해오다 2006년 초부터 템플스테이부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 영문학 전공, 영어 교사 등의 경험을 최대한 살린 봉사 무대를 찾은 것. 그는 매주 월·목요일 담당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장으로서 요일별 봉사자가 사정만 있으면 다른 요일에도 봉사한다.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할 때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준비과정과 일정을 함께 하기도 한다.

안 부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봉은사에서 진행하는 <법화경> <금강경> 등의 법문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선 등 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본인부터 많은 공부가 돼있어 외국인들이 불교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



을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연달아 사찰을 방문해 정진없이 바빠 때 더욱 기쁘다”는 안 부장. ‘봉사의 프로’로서 외국인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법홍포에 힘쓰고 있는 안영단 부장의 노력이 새해에도 계속 빛날 수 있길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언제나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이고 싶습니다.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깨침을 얻어가는 것이 곧 나 자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템플스테이 업무가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수행의 방편이자 포교라고 여겨집니다.”

전국에서 연간 약 5000여 명의 참가자들

“깨어있는 휴식 이끌고파”

■ 금산사 템플스테이 류영미 보살

이 체험하는 금산사(주지 원행) 템플스테이 현장에 가면 결 같은 환한 미소와 온화한 말씨로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이가 있다. 바로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담당하고 있는 류영미(38·일체행) 보살이다.

낮선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과 타 종교인들이 참가하는 산사체험 현장에서 어색함을 푸근함으로 바꾸는 사람. 그러한 류보살의 후덕함에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진다.

“사찰 중무소리는 곳이 불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첫인상인 만큼 친절과 봉사 정신 없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하기 십상인데도 금산사 산사체험은 항상 밝은 웃음소리로 넘쳐요.”

산사체험 참가자들이 금산사에 머무는 동안 불편한 곳은 없는지 항상 웃는 낯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 스님을 보좌하며 피곤함도 잊은 채 기획, 홍보

에서부터 잡다한 뒷정리까지 곳곳에서 그의 손길은 빛을 발한다.

“금산사 산사체험의 주제는 ‘깨어있는 휴식’이다. 복잡한 현대 생활에 지쳐 정신적 갈증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심적 편안함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해주고자 힘쓴다. 그러한 그가 있기에 참가자들은 여유롭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일감 스님은 “피곤을 뒤로한 채 묵묵히 참가자들을 돌보며 참가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곧 자신의 기쁨으로 알고 생활하는 일체행 보살의 모습이 진정한 보살이 아니겠는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음을 열고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을 마련하는데 동력이 되는 일체행 보살의 마음 쓰임이 향기롭다.

조종태 전북지사장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학교

이 사장 종 광

교 장 김용태 교 감 이종서
교 법 사 일 릉 행정실장 이은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0 TEL 053)764-0802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고등학교

이 사장 주종광

교 장 김태욱 교 감 양근식
교 법 사 이아용 법인사무국장 일 릉
행정실장 김홍석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0 TEL 053)764-0805

(재)선학원
용 산 사

(사단법인인 기림원 연꽃어린이집)

주 지 도 명

■ 경북 청도읍 청도읍 내동 822 TEL 054)372-7739

(양초·고급형)
연꽃양초

대표 김동호합장

■ 공 장 : 053)811-5331

(株)玖峰·鍍金·精工

ISO 9000:2000 인증업체 / QS 2000-1998 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 구룡정공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053)351-0009, 4856 / FAX 053)352-1717
(주)구룡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053)582-0156 / FAX 053)582-0157
구룡도금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053)581-0009, 8907 FAX 053)582-4173
Home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ri.net

델타석유

보일러 실내등유
할인 판매 (신속공급)

대 표 보경(박성일)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68-79

제8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 초급반(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쇄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 중급반(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 고급반(3개월) :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 특수반 :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실풀이 연화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목 오후 3시 ~ 5시

본원은 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근거에맞는 스님들용모시고 여법하게봉행하여 드립니다.

전통범음범패전수원원광사